

## 진정한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

여동찬/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철학자의 편지에서 표현했듯이 보람을 느끼고 추수의 기쁨을 맛보고 싶은 사람은 일을 할 줄 알고 준비하며 시련을 이겨야 하는 것이다.

”

「어느 철학자의 편지」 제4호를 보니 「삶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나는 「느낌」이라고 말하겠다. -나는 「생각」이라고 말하겠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말하겠다」고 했다. 느낌, 생각 그리고 사랑으로 표현된 그 삶은 일하는 사람에게 보람을, 준비한 사람에게 추수의 기쁨을, 시련을 이긴 사람에게 「영원」을 준다고 했다.

삶에 대한 입장 즉 인생관이 각자가 지니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에 좌우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없다. 그러나 인용한 글에서 나타난 것처럼 궁극적으로 인생을 통해서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보람, 추수, 영원」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해서 인생의 최후목적은 다름 아닌 행복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동서양이나 고금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행복 자체를 생각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관점이 있는 만큼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동서양은 서로 상이한 행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옛날부터 동양인들이 추구해온 행복은 쟁취하는 것보다 하늘로부터 얻는 것, 적극적이고 동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느껴진다. 그와는 반대로 서양인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행복은 쟁취의 대상이니 적극적이고 동적인 입장에서 만들어지고 획득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도교사상을 비롯한 모든 동양 사상의 신봉자들은 대자연에 대한 순응을 강조하면서 그런 순응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쳤고, 서양인들은 오히려 대 자연을 다스리고 지배해야만 참다운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왔다.



“  
 행복은 하늘이  
 주는 것이라기보다  
 역경을 이기고  
 장애물을  
 극복하는 행동의  
 소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종교사상에 입각하여 살펴보면 불교사상에서 깊은 영향을 받은 동양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속세를 떠나 모든 욕심과 번뇌의 속박을 벗어나 자유로운 경지에 서만 찾을 수 있다고 가르쳐왔다.

따라서 세속을 떠나 은둔생활을 하는 것은 행복의 길이며 진정한 희열을 맛볼 수 있는 것으로 믿어왔던 것이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기독교사상은 오히려 정의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희생과 투쟁을 통하여 진정한 행복을 쟁취할 수 있음을 가르쳐왔다. 여기는 소극적인 행복의 개념보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과 투쟁에서 얻어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복의 개념이 지배적이다. 복음성서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진복(眞福)이란 은둔생활이나 산속의 암자에서 얻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투쟁하면서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동양사상에는 또한 원래 운명론이 간과할 수 없는 영향을 끼쳐서 행복을 각자가 만들어내기보다 하늘로부터 운명적으로 타고나야 한다고 믿어왔다. 그래서 오

늘까지 한국어사전에는 「행복」이란 어휘가 「복된 좋은 운수, 행운」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동양인들보다 능동적인 인간으로 세상만사에 입해온 서양인들에게는 노력과 희생이 없는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은 하늘이 주는 것이라기보다 역경을 이기고 장애물을 극복하는 행동의 소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동양사상은 자아를 죽여가면서 행복에 도달한다고 가르쳐왔고 그와는 반대로 서양종교와 철학사상은 자아를 살려 실현해야 행복의 경지에 들어간다고 가르쳐왔다.

우리 눈에 드러나는 그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동서양의 행복의 개념에 있어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지나친 욕심, 사리사욕이 없어야 진정한 행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불교가 요구하는 해탈의 경지나 그리스도가 권하는 정의를 위한 투쟁에는 사리사욕이 없어야 한다.

오늘에 와서 종교사상의 힘이 상당히 쇠퇴해진 동서양, 물질만능주의가 팽배

해진 동서양에는 참되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리사욕이 앞서기 때문에 행복이나 진정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

우화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미련한 늑대, 강물에 비치는 고깃덩어리의 그림자를 잡으려다가 입에 물고 있는 고깃덩어리를 놓치고 마는 어리석은 늑대모양으로 욕심에 사로잡힌 오늘의 수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눈앞에 두고도 이를 외면하고 행복의 그림자에 홀리는 것만 같다. 그들은 잡지도 못할 그림자를 쫓다가 실망하고 불행해지기 마련이다.

산업사회의 등장과 물질적 풍요는 많은 한국인들의 행복관을 바꾸어 놓은 것 같다.

옛날에는 선비들의 행복이란 가난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이 아닌 정신적 만족으로 해석되었으나 최근들어 물질만능주의, 물질제일주의적인 경향이 심해져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면은 정서적 세계를 압도하는 느낌이다.

이런 경향은 또한 서양에서보다 심한 것 같다. 몇 십년전만 해도 우리는 서양인들을 물질적인 동물로 묘사하면서 그들에게 「정신적 가치」를 다시 가르쳐주어야 하겠다고 주장했다.

오늘의 물질주의적 경향에 휩쓸려 많은 한국젊은이들은 적성에 맞고 보람을 안겨줄 수 있는 학과를 선택하기보다 경제적으로 유망한 학과를 선호한다. 그리고 공부를 마친 뒤 그들은 다시 물질을 기준삼아 직장을 골라 취업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지혜로운 조언자의 역할을 담당하기보다 부모들은 과거의 가난을

잊지 못해서인지 젊은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물질적인 경향에 부채질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우리 젊은 여성들도 날이 갈수록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과 정신적 만족보다 역시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여건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인상이다. 이런 현상은 과연 늘어나는 이혼율과 무관한 것인가? 그리고 그런 현상이야 말로 장차 크나 큰 사회문제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정신적 만족과 참다운 행복이 결여되는 경우 가치관의 혼란과 함께 사람은 비뚤어지기 마련이다. 잡으려는 그림자가 허무한 것으로 판단되는 날에 다른 그림자를 쫓게 되는 사람은 악순환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다.

최근들어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과 사기행각, 신문의 사회면을 어지럽게 만드는 부정사건 등을 분석해 보면 역시 진정한 자아를 살리지 못한 사람들, 허영과 지나친 사욕에 사로잡힌 사람들, 행복의 그림자를 쫓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의 몸부림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충실하고 진정한 자아실현을 위해 착실하게 노력을 했더라면 부자가 되지 못했을망정 허무에 빠지지 않고 작은 행복이나마 누릴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철학자의 편지에서 표현했듯이 보람을 느끼고 추수의 기쁨을 맛보고 싶은 사람은 일을 할 줄 알고 준비하며 시련을 이겨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다운 성취인 것이다. 모든 것을 쉽게 또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기쁨도 보람도 만족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卍